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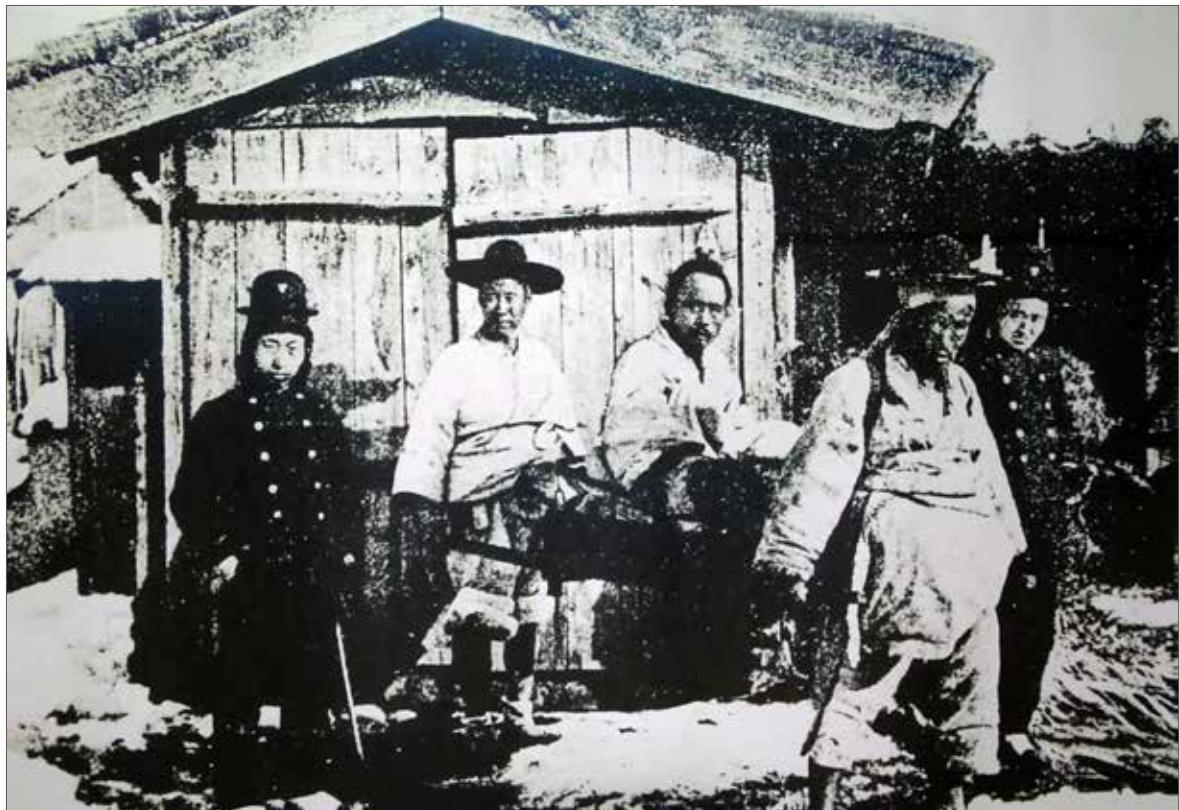


奇平
多

2013 겨울호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기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봉준 全琫準 사진



1895년 / 20×25

각종 교과서, 역사서 등에 실려 널리 알려진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의 사진이다. 이 사진은 그의 모습이 담긴 유일본으로, 최근 학계의 연구를 통해 일본인 사진작가 무라카미 텐신이 1895년 2월 27일 일본영사관에서 법무아문으로 이송되는 전봉준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Contents 2013 겨울 14호



02	기념관 화보	
04	신년사	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맞이하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대곤
06	재단 포커스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대회 이모저모
08	기획특집	2013년도 하반기 특별전시 '1894년 이후의 동학농민혁명'
10	녹두칼럼	문일평의 동학혁명론 - 한국사학연구소장 노용필
12	인터뷰① 동행공감	완주지역 기념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 회장 김정호
16	동학농민혁명 역사 바로알기	고부봉기② -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18	인터뷰② 발굴! 참여자유족	충청도의 대도주, 미래를 내다본 동학농민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이상옥
22	만화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강원도 · 경기도 지역의 봉기와 전투



24	동학농민혁명 인물열전	문장로(文章魯) : 충청도 태안 동학농민군의 핵심 인물 - 덕성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조재곤
26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대상	오동단, 동학농민혁명의 혼을 찾아서④
30	세계의 혁명	프랑스 혁명의 전개과정 - 충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서정복
34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보은 · 옥천 · 영동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40	기념재단 시발통문	재단소식 / 주요사업안내 / 행사 알림
44	네트워크 소식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 50주년 기념식 외





일제에게 공초받는 전봉준

굴하지 않는 정신

“너희는 나의 적일뿐이다”

순창 피노리에서 피체되어
공초를 받는 중에도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고초와 유혹을 이겨내고
끝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를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맞이하여

1894년 이후 두 번째 갑오년의 첫 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 1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뜻 깊은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여념이 없으셨던 유족회 여러분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은 제2기 집행부가 재단 운영을 시작한 첫 해였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이 다 그렇듯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겠지만, 재단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충실히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주갑 행사를 대비하여 저희 재단에서 추진한 주요 실적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실시하지 못한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전국기념대회를 충청북도 보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기념대회 개최 장소는 2차례의 이사회를 걸쳐 보은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보은 지역은 1893년 보은 집회가 열렸던 곳으로 800여명의 농민군이 희생당한 북실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10월 17일~18일 양일간 관련단체 관계자들과 동학농민혁명 유족 100여분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념식 그리고 유족의 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120주년 기념대회 개최준비에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슬로건을 공모를 통하여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를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50여 일간 진행된 공모에

전국에서 600여 분이 참여해 주셨으며, 이 중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슬로건을 통해 전국의 모든 동학농민혁명기념단체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정신선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테마가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체험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이해하고 민족적 자긍심고취와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실시한 테마답사에는 전국 21개 단체에서 877명의 답사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넷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반기의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기구, 집강소를 찾아서', 하반기의 '1894년 이후의 동학농민혁명'으로 두 번의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특별전은 지난 2013년 11월 4일(월)부터 시작되어 올해 3월 28일(금)까지 전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건립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이 황토현 전적지에 세워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지금까지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중 가장 거대한 규모로 설계될 예정이며, 연수동을 통하여 거쳐 가는 기념관, 유적지가 아닌 심도 있는 학습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로서 더 많은 국민들과 학생들이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높이고 그 뜻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배움과 홍보의 장으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全國化), 세계화(世界化), 미래화(未來化)를 이루하기 위해 저희 재단은 물론이고,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년 말, 우리 재단이 법정기부금 지정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활성화의 커다란 도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녹두꽃 독자여러분 모두 올해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로 120주년을 맞이한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의 어떤 혁명에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자랑스러운 우리민족의 풀뿌리입니다.

우리 재단은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선양할 수 있는 정신문화로 발돋움할 때 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전국기념대회 이모저모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전국기념대회가 지난 10월 17일(목)부터 10월 18일(금)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보은에서 진행되었다. 2006년부터 시작해 온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는 내년에 120주년을 맞이하며, 이번 기념대회는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유족, 관련단체 대표, 보은군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정신을 되새기는 뜻 깊은 행사였다.



동학농민혁명 유족 대상 보은지역 유적지 답사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학술대회 개최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념탑 동학농민군
추모와 현화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흙의 합토식과 기념식수



유족의 밤(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 화합한마당) 행사



기념식 식전행사
(놀이마당 울림, 보은문인협회 구장서 회장등 4개 팀)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전국기념대회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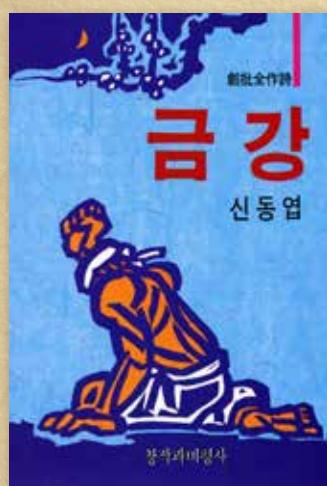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청소년 백일장 시상



만장기 행진



만장기 행진 도착지점에서의 사물놀이



신동엽 - 금강 | 최금동 - 동학란 | 조선총독부발간 - 초등국사1 | 조선총독부발간 - 초등국사 | 산운 장도빈 - 갑오동학란과 전봉준

2013년도 하반기 특별전시 1894년 이후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운영부
학예사 박아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04년도 개관 이후 매년 유물 수집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유물 수집 방법은 공고를 통한 구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년간 소중히 보관한 유물을 직접 기념관에 기증하여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유족들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전은 지난 10여 년간 수집한 유물을 소개하고자 5,300여 점 가운데 전시 주제에 따라 40점을 선정하여 소장품 전시로 구성하였다.

2013년도 하반기 특별전의 제목은 '1894년 이후의 동학농민혁명'으로 동학농민혁명이 막을 내린 1894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약 120여년의 시간동안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전시물의 종류는 대중이 쉽게 접하여 영향 받기 쉬운 교과서와 역사서, 신문 등이다.

지난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동학농민혁명 이후부터 20세기 초 45년간의 일제 강점기와 이어진 미군정시기를 지나 남북분단 등 연달아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과 많은 변동을 겪으며 함께 변화해 왔을 것이다. 따라서 대중적인 자료를 통해 지난 120여년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사회와 대중의 인식을 살펴보고, 시대상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전시물을 통해 소개하고자 하였다.

전시는 총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는 '교과과정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19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발간된 역

사 교과서를 전시하였다. 역사교과서는 그 시대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당시의 학생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두 번째 파트는 '시대상에 비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역사 기록서를 전시하였다. 전시품 중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영화 시나리오 '동학란'과 동학농민혁명에 최초로 민족사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산운 장도빈 선생의 '갑오 동학란과 전봉준'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동학농민혁명의 영향을 받은 독립운동역사서를 전시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일반적으로 반봉건을 목표로 한 1차 봉기와 반외세를 외친 2차 봉기로 크게 구분한다. 이 가운데 2차 봉기는 외세의 침입에 대항하여 일어난 것으로 그 정신과 애국심이 독립운동에까지 이어졌다. 이 사실은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백범 김구 선생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본 파트에 전시된 '백범일지'에는 김구 선생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황해도 해주의 접주로 활약했던 사실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트에서는 '조선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직후 조선에 대한 세계열강의 시선은 어떠하였는지 조명해 보았다. 당시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종군기자를 파견하여 조선의 상황을 사진과 그림, 글 등으로 기록하고 신문이나 책을 통해 본국과 세계 각국에 소개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을 목표로 한 1차 봉기와 반외세를 외친 2차 봉기로 크게 구분한다. 이 가운데 2차 봉기는 그 정신과 애국심이 독립운동에까지 이어졌다.

이 자료들은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세까지 비교적 자세히 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하반기 특별전시 소장품 전을 통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1894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120여년의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크나큰 사회 변동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이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왔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동학농민혁명과 함께 할 우리의 모습도 그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이번 전시는 2014년 3월 28일까지 개최된다.

문일평의 동학혁명론

문일평의 역사 해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가 1894년 이후 채 30년도 지나기 전인 1923년의 시점에 벌써, 한국에서 어느 보다도 가장 먼저 이를 '동학혁명'으로 규정하였음은, 연구사에서도 크게 주목해 마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다만 그가 주창한 바는 전봉준을 상민으로 보고, 그러한 전봉준이 주도한 동학란을 '계급투쟁설'에 입각해서 '동학상민혁명'이라 규정하려는 것이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문일평(文一平, 1888-1939)은 대표적인 민족주의 한국사학자 중의 하나로 유명하다.

일제시대에 '조선심(朝鮮心)'을 내세우며 '조선학(朝鮮學)'의 정립을 주창하였을 뿐만아니라 신문에 많은 역사

관련 글을 쉽게 써서 계재하여 한국사학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음으로 해서, 종교교 학생들의 교과서에는 물론이고 대학생들의 개설서에서도 꽤 상세히다뤄지는 인물인 것이다. 그러한 그가 일찍이 1923년에 「조선과거의 혁명운동」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한국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혁명으로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을 꼽고 있다는 사실은, 하지만 지금껏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문일평의 한국사학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도 간혹 그러하지만, 그간에 '동학농민전쟁론' 혹은 '의거론' 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자신들의 논지를 다지기 위해 기왕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분석한 글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단적으로 종래의 모든 연구 성과를 거론하며 가장 치밀한 분석을 한 유영익(柳永益)의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일조각, 1998)과 조경달(趙景達) 지음, 박맹수 옮김의 「이단의 민중반란-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조선 민중의 내셔널리즘」(역사비평사, 2008)에서조차도 아예 그러하다.

이 「조선과거의 혁명운동」에서 문일평은 맨 첫 문장으로 “조선에도 혁명운동이, 왕위쟁탈 이외에 계급쟁투가 존재한 것은 아무리 은휘(隱諱)하려 해도 은휘할 수 없는 역사상의 사실이다.”고 밝힌 후에, “그 반항의 도는 강압의 도를 따라 제1차 반란보다 제2차 반란이 더욱 격렬하였고 제3차 반란보다 제4차 반란이 더욱 격렬하였다”고 설파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제1·2차 반란은 고려시대의 만적(萬積)의 난과 충주(忠州) 관노(官奴)의 난을, 제3·4차 반란은





조선시대의 홍경래(洪景來)의 난과 동학의 난을 각각 일컫는 것임을 앞뒤에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잘 알 수가 있다. 문일평은 이렇듯이 '반란' 혹은 '난'이라는 용어를 함께 구사하기도 하면서, 이들을 동시에 '혁명'으로 규정하여 논하고 있는 것인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전봉준은 본래 상민계급의 출생으로 동학에 귀의한 일인(一人)이니 체구는 비록 단소하나 그 정한(精悍)한 기상과 열렬한 정신과 출중한 지모와 비범한 재식이 참말 파격적 호걸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 때에 양반계급에서 어육(魚肉)된 상민계급의 참화가 날로 익심하여 민요가 봉기함을 보고 이 호걸이 크게 비분강개하여 스스로 민중의 선두에 서서 진퇴를 지휘하여 마침내 동학란이란 대파란을 권기(捲起)하니 이 곧 상민계급의 제2차 혁명운동(계급쟁투의 제4차 난)이다”

2014년은 1984년 아래 두갑자 되는 해로, 이를 기리기 위한 굵직한 행사가 여럿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 이 글에서 그가 '계급쟁투'라고 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계급투쟁'을 이르는 것이고, 이것은 물론 사회주의의 역사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일평의 역사 해석이 과연 정당

문일평이 조선시대의 혁명으로서 홍경래의 난과 동학의 난을 평가하면서, 둘 다 양반계급에 대한 상민계급의 혁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가 1894년 이후 채 30년도 지나기 전인 1923년의 시점에 벌써, 한국에서 어느 보다도 가장 먼저 이를 '동학혁명'으로 규정하였음은, 연구사에서도 크게 주목해 마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다만 그가 주창한 바는 전봉준을 상민으로 보고, 그러한 전봉준이 주도한 동학란을 '계급투쟁'에 입각해서 '동학상민혁명'이라 규정하려는 것이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며칠 지나지 않으면 밝아올 2014년은 1894년 아래 두 갑자, 곧 12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리기 위한 굵직한 행사가 여럿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기념 학술 모임이 국제적으로도 변듯하고 내면적으로도 알차게, 그래서 나중에 봐도 후회 없도록 참으로 잘 꾸며지리라 굳게 믿는다. 이미 몇 차례 보아왔듯이 발표자 자신이 한참 전에 쓴 기왕의 글이나 적당히 우려내 양산해내는 그런 학술대회가 아니라, 앞서 살핀 바 문일평의 동학혁명론과 같이 그간 세간에 묻혀 전혀 눈길조차 받지 못해, 되레 참신해 보이는 그런 학문적 성과들을 발굴해 재음미해보는 자리라도 한바탕 제대로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및 전북대학교 HK교수 역임, 한국사학연구소 소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 「동학사와 집강소 연구」 「한국근현대사회사상사 탐구」 등 저서 9권, 역서 2권. 편저 「한국중국역대제왕세계연표」 외 공저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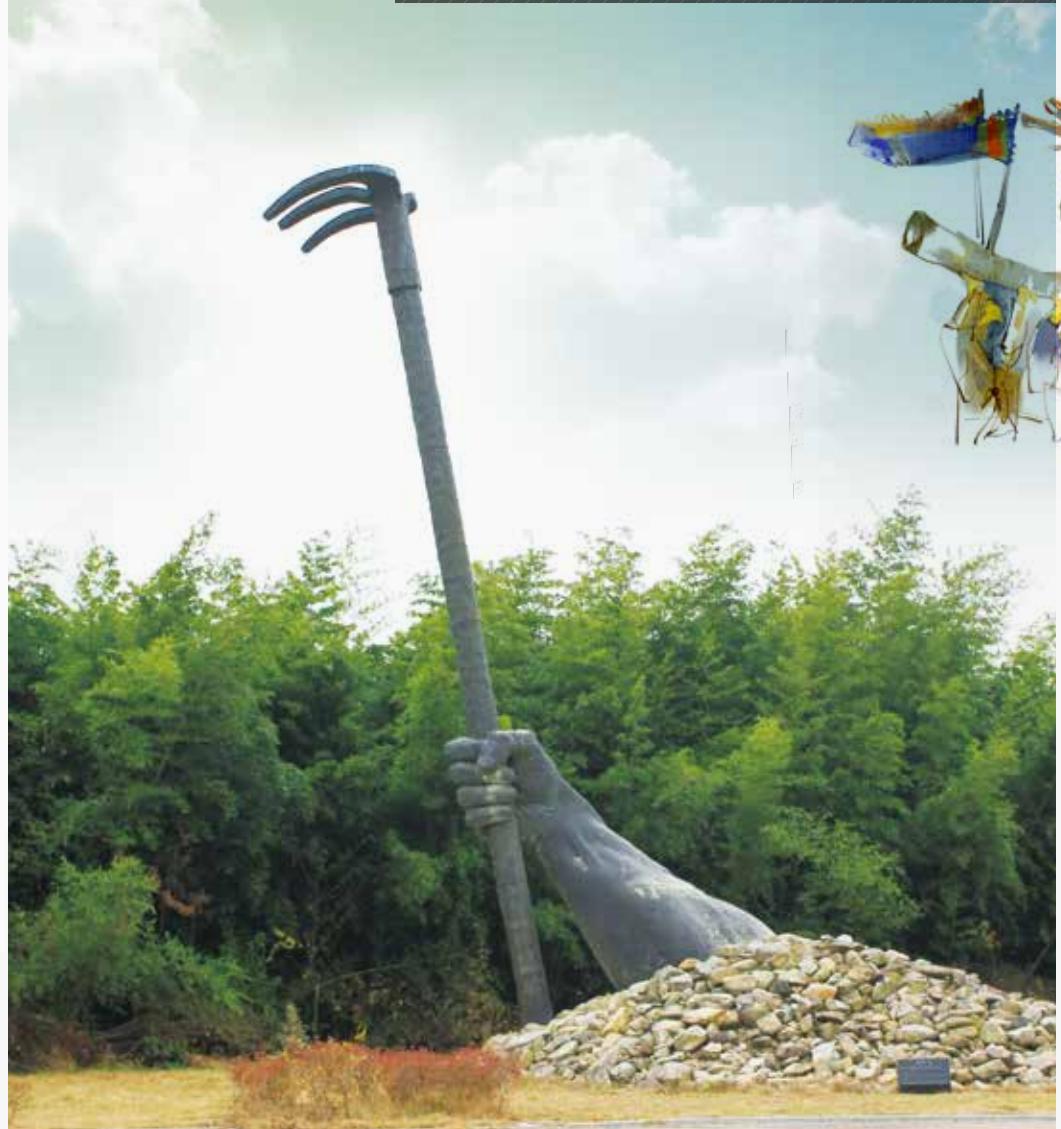
한국사학연구소장

노용필



완주지역 기념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조선침탈에 맞서 목숨 바쳐 싸울 것을 맹세하고 일어났으니, 이가 바로 동학농민 혁명의 재봉기인 삼례봉기였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자행된 이후, 전봉준 장군은 1894년 9월, 일본병을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국외로 구축할 마음으로 다시 기병하자는 취지의 격문을 발송했다. 격문을 전달받은 농민군들은 전라북도 완주 삼례로 너나 할 것 없이 몰려들어 일본의 조선 침탈에 맞서 목숨 바쳐 싸울 것을 맹세하고 일어났으니, 이가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재봉기인 삼례봉기였다. 이들은 비록 통한의 우금치를 넘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의지는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렸다. 현재는 그들의 뜻을 이어받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재봉기의 시작점인 삼례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정호 회장님을 만났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
회장 김정호



Q 김정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완주 삼례에서 태어나 전라중·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의 회장을 맡아 완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김정호 회장님과 동학농민혁명은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A 제가 삼례에서 태어난 것이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지요. 우연한 기회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의 고문으로 활동할 기회를 얻어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3년 전에는 회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회장을 맡게 되는 바람에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삼례봉기 기념행사를 주도하여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현재 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지부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개별 사업 회로서 활동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A 제가 회장직을 맡기 전에는 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상당히 교류를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주동학 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지부가 아닌,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라는 개별 사 단법인으로 독립할 계획 중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기념 사업회가 더 변형하고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까?

A 완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맡게 되면서 전 회장님들께서 삼례의 동학 농민혁명 역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료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며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운주면 산북리에 있는 대둔산에는 동학 농민혁명 최후의 항쟁지가 있습니다. 대둔산의 동학농민군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관군과 일본군들에 맞서 한 달여간 항쟁하였으며, 결국 일본군들의 무력에 함락 당했을 때는 벼랑에 스스로 몸을 던진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항상 가슴이 아프고, 그분들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기 위해 기념사업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완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소개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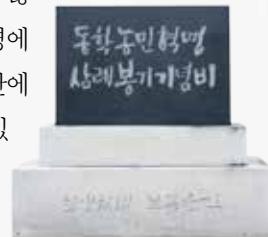
A 삼례봉기가 가진 의미를 기념하고 전승해나가기 위해 저희 사업회에서 2003년 조성한 삼례봉기 역사광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조형물인 대동의장, 추념의장 그리고 2004년 추가로 설치된 동학농민군 출진상은 구성과 내용 면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완주지역에 설치되었던 집강소가 있으나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 이를 알아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을 탄압하였으며, 체포된 김개남 장군이 전주로 압송되자 두려움을 느껴 초록바위에서 처형한 것으로 유명한 전라감사 이도제의 영세불망비가 완주군 신금리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마찬가지로 동학농민군을 탄압하였던 당시 홍주목사 이승우의 영세불망비가 함께 세워져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대둔산 항쟁지가 있습니다.



대둔산 등산로 입구에는 2001년 저희 사업회에서 설립한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항쟁 전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고증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계속해서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Q 삼례봉기는 2차 봉기의 도화선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A 잘 아시겠지만, 동학농민혁명은 프랑스 시민혁명이나 중국의 태평천국운동 등과 비교해보아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례가 아주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회에서는 학술대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있어 삼례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밝힐 계획입니다. 재단에서도 전북 전체, 전국을 아울러서 삼례봉기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 내년이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됩니다. 이를 맞이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행
사들이 있으십니까?

A 120주년 기념행사는 동학농민혁명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백일장대회,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OX 퀴즈 등을 계획 중이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이름으로 소식지를 발간할 생각입니다. 완주에는 동학농민혁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설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소수설적인 역사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고 알릴 수 있는 소식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Q 기념재단에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A 재단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관련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재단의 역점사업들이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갑오년 이니만큼 어느 때보다 정신선양에 힘을 기울이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부농민봉기의 전개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고부군수 조병갑의 재부임

1893년 11월 30일, 익산군수로 발령난 조병갑이 부임지로 가지 않고 계속 고부관아에 남아 있으면서 전라감사 김문현을 통해 재취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 사이 이은용, 신재묵, 이규백, 하궁일, 박희성, 강인철 등이 순서대로 고부군수에 임명되었으나 신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단 한명도 부임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전라감사 김문현은 거짓 장계를 조정에 올려 조병갑을 고부군수로 다시 발령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조병갑을 다시 고부군수로 임명하였다. 그 사이 1893년 12월 전봉준은 사발통문의 거사계획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감영에 다시 수세 감면을 비롯한 폐정개혁을 호소했다. 그러나 김문현은 전봉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 더구나 조병갑은 1893년 11월 익산군수로 발령을 받고도 고부관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고부군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결국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재임명된 하루 뒤인 1894년 1월 10일 드디어 고부군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고부농민봉기가 시작된 것이다.

고부관아로 진격

예동 마을에 모여든 고부민들은 5백여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말목장터를 거쳐 읍내로 진격해 들어가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아전들을 취조하여 처벌하였다.



1



2

1. 고부관아터
2. 말목장터와 감나무
3. 만석보유지비와 만석보터

군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확보하여 세력을 확충하고, 수세로 거두어들인 양곡 1,400석을 몰수했다. 또한 진전에서 거둔 세곡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고부민들의 직접적인 원성을 가져온 만석보를 헐어버렸다. 이때 고부군 15개 마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1만여 명이나 되었을 만큼 그 규모가 컸다고 한다.

고부관아를 점령한 고부군민들은 농민군을 조직하였다. 고부 읍내에 장막을 치고 밤에는 모다불을 피우면서 진을 치고 있었던 고부 농민군은 1월 17일 말목장터로 진을 이동하여 설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이든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장정들만으로 농민군을 갖추었다. 이들 고부 농민군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전봉준, 김도삼, 정익서 등이 고부봉기를 주도하였지만 그 외에도 각 마을의 동장, 집강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들의 책임 하에 모여든 고부 농민군은 단결력이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가 되었다. 말하자면 각 마을의 동장과 집강들은 고부봉기를 주도한 지도부와 고부 농민군들을 연결하는 중간 기구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백산에 진을 치다

말목장터에 진영을 설치하고 있으면서 각 면리 별로 취회에 참가하고 있던 고부농민군들은 백산으로



3

진을 이동하였다. 그러자 전라감사 김문현은 전주영의 군위 정석진을 시켜 전봉준을 만나게 하면서 해산을 권유하였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수십 명의 군사를 상인으로 변장시켜 장터로 잠복시켰다. 그러나 이를 미리 알고 있던 전봉준은 이들을 붙잡았으며 도망가던 정석진은 고부 농민군들에게 살해되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고부 농민군들이 일정한 조직과 세력을 갖추고 백산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조정에서는 고부군수 조병감을 나문정죄(죄인을 잡아 심문하고 죄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전라감사 김문현을 월봉삼등(삼등급 감봉)하였다. 또한 용안현감 박원명을 고부군수로 새로 임명하는 한편, 장흥부사 이용태를 고부 안핵사로 임명하였다.

확산되지 못한 봉기

백산에 진을 치고 있던 고부 농민군은 2월 23일

다시 백산을 출발해 고부군을 재점령한 뒤, 군기고의 무기로 무장을 강화하고 25일 다시 백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백산 근처에는 장시가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다만 고부 농민군들은 한달 여동안 소강상태로 있었다. 그러자 이때부터 고부 농민군 내부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단단한 조직력으로 결속되어 있던 고부 농민군 내부에 의견이 상충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실천적인 행동에도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2월말 전봉준은 함열 조창에 나아가 전운영을 격파하고 전운사 조필영을 징치하자고 했으나 ‘민요가 월경하면 반란의 칭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부 농민군들이 응하지 않았다. 이같은 내부적 갈등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최고지도부와 중간지도부 사이에 서로 지향했던 바

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중간지도부가 이탈하자 하부 농민들까지 해산하여, 결국은 고부봉기는 한계를 맞게 되었다.

이때 신임 고부군수 박원명은 음식상을 크게 차려 고부 농민군들을 불러모아 “여러분이 조용히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고 지낸다면 죄를 용서하고 읍폐를 시정하겠다”며 해산을 설득하는 효유책을 구사하였다. 이에 고부 농민군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결국은 고부군의 지역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고부 농민군의 뜻에 따라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폐정을 개혁하고 탐학한 관리를 제거하는 데 뜻이 있었던 고부 농민군들은 자신들의 의지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자 더 이상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다. 이점은 고부봉기가 종래의 봉기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봉준 등 상충지도부가 지향했던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불씨

박원명의 설득으로 고부 농민군 기본세력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눈치만 살피면서 고부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로 들어왔다. 그는 고부에 들어오자마자 박원명의 수습책을 오히려 뒤엎고 봉기 참가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용태는 역졸 800여명을 거느리고 고부로 난입한 후 박원명을 협박해 봉기 참가자를 색출,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 살육하였다. 고부 농민군은 3월 13일 더 이상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전봉준 등 지도부는 무장의 손화중포로 피신하였다. 고부농민봉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고 전봉준의 노력은 성과 없이 끝을 맺는 듯했다. 그러나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보다 더 큰 항쟁, 즉 부패한 시대에 대한 조선농민의 총체적 항쟁으로 서서히 옮겨 가고 있었다.

참고문헌

김은정 · 문경민 · 김원용, 『동학농민혁명 100년』, 나남출판, 1995
신순철 · 이진영,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충청도의 대도주 미래를 내다본

동학농민군



참여자 | 이원익의 손자

이상옥

동학농민혁명을 준비함에 있어 동학의 사상을 알려 농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 이었을 것이다. 이상옥 선생님의 조부 이원익 참여자께서는 충청지역의 대도주로서 우금치 전투, 보은 북실전 투에 참여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동학의 사상을 충청도 지역에 알리고 교육하여 그 정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지금도 조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오고 있는 이상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雨
落

“미래를 내다보셨던 이야기들도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어
조부님께서 모든 것을 훤히 훰뚫어보고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조부님께서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셨나요?

A 저희 조부께서는 충청도 일대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
금치 전투와 보은 북설전투에 참여하셨는데, 보은에서는 총을 든 관군과 일
본군에 맞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맹이, 창 등을 들고 싸우다가 거의 전멸하다시
피 했고, 겨우 목숨을 건진 조부님은 최시형 교주를 모시고 경상북도 불정에 있는
외가에 몸을 피하셨다고 합니다.

Q 최시형교주와 함
께 피신하셨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서로
친분이 있으셨던 걸까요?

A 몸을 피하는데 잘 알지 못하고 밑을 수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지는 않을 테
니 두 분이 잘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자칫 목숨을 잃으실 뻔 했
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최시형 교주를 모시고 외가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최시형 교주께서는 외가에 2주 정도 머물러 있다가 떠나셨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주
로 언제 말씀해 주셨을
까요?

A 평소에도 자주 말씀해 주셨고, 식사하실 때면 꼭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이야
기를 꺼내셨습니다. 조부님께서 제가 14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까지 계
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보니 머릿속에 새겨지다시피해서 지금까지 그
말씀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학을
했다는 것을 들키면 곧바로 잡혀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절대 얘기
를 꺼내지 않으셔서 이웃사람들도 몰랐을 겁니다.

Q 조부님께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까요?

A 앞서 말씀드렸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던 이야기들과 당신께서 깨달으신 시국에 관한 이야기와 앞으로 변해갈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 시국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미래를 내다보셨던 이야기들도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어 조부님께서 모든 것을 훤히 째뚫어보고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말씀해 드리자면 조부께서 1950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올해 안에 나라에 큰 난리가 날것이다. 하지만 군이 고향을 떠나지 마라. 팬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해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조부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피난가지 않고 별 탈 없이 전쟁을 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피난 갔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갖은 고초를 다 겪었다는 말을 듣고 조부님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옛날에는 마을에 디딜방아라고 밭로 밟아 곡식을 쟁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부님께서 그곳에서 곡식을 쟁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뒤큄치가 없는 신발이 나올 것이다. 여자들도 옷을 사 입게 될 것이다 등 앞으로의 세상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부님께서 돌아가신 뒤 한 번씩 고향에 찾아가면 마을 어르신들이 '당신 할아버지는 사람이 아닌 귀신이야. 어떻게 뒷날의 일을 그렇게 잘 아셨을까?'하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또 저에게는 '나중에 할아버지가 꼭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도 꼭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웃음)

Q 조부께서 동학에 조예가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A 그렇습니다. 대도주로서 임명장까지 받으셨으니 상당히 도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릴 적 간혹 중원에 살던 할머니가 저녁에 집을 방문하면 조부님께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글을 받아서 저고리에 감추고 돌아가곤 하셨지요. 훗날 알고 보니 그 분이 충청도 지역은 물론이고 경기도 여주까지 가서 조부님의 글을 전달했다고 하니 조부님께서는 충청도지역에서 동학사상을 연구하고 알리는데 큰 공을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Q 조부님의 유물을 보유하고 계신 것 이 있습니까?

A 대도주로 임명되시면서 받으셨던 임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선언이라 는 책을 남겨두셨는데 제가 이 책이 있다는 것을 천도교 수원교구에 알려주었습니다. 수원교구에서는 그 책의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해 두었는데 서울교구에서 그것을 보고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올렸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천도교에서도 보유하지 못한 책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책자들도 다수 남기셨습니다. 조부님께서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찾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셔서 계속 간직해오고 있고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생각입니다.



1. 갑오전망장졸기념비
2. 망선루
3.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
4. 모종사



Q 조부님께서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지는 않으셨나요?

A 해방 일주일 전쯤에 누군가의 밀고에 의해 체포되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고초는 겪지 않으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셨다가 아침을 드시고 서로 들어가는 생활을 3일간 하시고 풀려나셨습니다. 그러나 순사들이 조부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서적들을 압수하여 불을 질러버리는 바람에 중요한 자료가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부님께서는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후에 다른 누가 보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해 없이 풀려나신 것이 천운이라며 자신은 하늘이 살린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Q 조부님께서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 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 조부님께서 시국에 밝으시고 미래를 내다보셨던 것도 다 동학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조부님을 존경했지만 나이가 들어 갈수록 더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봉기와 전투 >

김대환 <만화가>

강원도의 봉기는 강원도 남부지역(영월, 평창, 정선, 원주) 농민군들의 활동과 풍전의 대접주 자기석의 활동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자~ 우리 모두
싸워 이깁시다.
승리는
우리편입니다.



부자들과 향리의 재물을 정벌하고 토지문서를 빼앗았으며 민간의 소송을 처리하는 등 경제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들은 곧 민보군의 습격을 받아 20-30명의 피해자를 내고 행장으로 물려났다.



일본군과 관군의 힘이 너무 막강하오.
다시 한 번 강릉 방을 봄아보고 싶었건만....

충청도 일대 농민군과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러나 그들은
민보군과 관군의
방비에 막혀 다시
홍천으로
돌아왔다.



농민군은 자작고개에서 관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800여명에 이르는 엄청난 희생자들
내며 또다시 패배하였다.

자작고개에 수많은 농민군이 흘린
피가 고여, 오고 다닐 때
'자작자작'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자작고개>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이것이 강원도 농민군들의
마지막 행방이었다.



경기도 역시 9월에
들어 농민군들의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 세력과 활동이
매우
미약한 편이었다.

이들의 활동은 9월 초부터 농민군의
진압에 나선 이두황의 보고문을 통해
파악된다.

이두황

경기도 모 저에서
봉기한
농민군이
용인, 죽산, 안성,
음죽, 이천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충청도로 이동하여
활동하였다.

용인

죽산

음죽

이천



충청도

이후 경기도에서 농민군의 조직적인 활동은 경지 사라졌다.

휘-잉--



문장로(文章魯)

충청도 태안 동학농민군의 핵심 인물



동학입도와 봉기

문장로(1846~1919)는 남평 문씨로 충청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출신이다. 이 지역은 1893년 예포 대접주인 상암 박희인(일명 : 덕칠)이 옹기장수로 변장하고 전교를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들어갔는데 문장로도 이때 입도하였다. 그는 이후 접주와 포장을 맡았다. 당시 충청도 서부지역은 박인호의 '덕포(德包)'와 박희인의 '예포(禮包)'를 중심으로 동학교



도가 결집되었다. 이들은 최시형 중심의 동학교단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북접농민군이었다. 전국적으로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무렵인 1894년 10월 태안군수와 서산군수가 내포지역 농민군 지도자 30여 명을 처형한다는 소식을 들게 된 태안 지역 동학 지도자들은 접주 문장로의 집에 모여 대규모 봉기를 결의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본포에서 징을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응하여 일제히 우리 포(包) 관내는 일시에 전광과 같이 모이며, 한편으로 각처에 간한 두목을 일일이 방출하기로 약속하니 9월 그믐[양력 10월 28일]이었다. 그 때 방갈리 문장로 집을 위시하여 밤에 각처 두목 몇 사람이 모의하던 중 급보를 접한 이북면 포지리 접주 장성국은 밤에 횃불을 들고 갯벌 10리 길을 달려 원북면 방갈리 접주 문장로 집에 와서 사방에 치보하였다” 이날은 북접 법현 최시형으로부터의 일제 봉기 지시가 내포지역에 도착한 날이기도 하다.

태안 동학농민군의 활동

문장로의 집에 모인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다음날인 10월 29일 이치봉을 북부대장에, 안현묵을 기수대장으로 정하고 세력을 합해 수천 명이 태안읍으로 운집하였다. 10월 30일에 농민군들이 관아를 점거하고 건물을 불태운 후 체포된 지도자들을 구출하는 한편 안무사 김경제와 태안군수 신백희를 칼로 처형했다. 서산군수 박정기도 이때 처형되었다. 이후 태안과 서산의 동학농민군은 해미와 홍성으로 자리를 옮겨 정부군 및 민보군과 싸워 크게 이겼고, 면천과 덕산을 지나 예산의 신례원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

이 지역은 홍주목사 이승우를 정점으로 민보군 세력이 매우 강한 지역으로 관군과 연합하여 대규모로 진을 치고 공격하였지만 농민군들은 동요치 않았고 오히려 각처에서 그들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해미성 전투 이후 농민군들은 연합토벌군에 패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체포된 사람들도 총살되거나 목을 잘리는 등 잔인한 보복이 이어졌다.

문장로와 같이 거의했던 이치봉도 민보군에 체포되어

근홍면 수룡산에서 작두로 목을 잘려 처단되었고 가족들은 설악산으로 도망하였다.

갑오년 이후의 문장로

문장로는 안면도, 광천, 공주, 천안 등지의 토굴과 산중에서 10여년 간 피신생활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홍주목사는 그의 체포를 위해 현상금을 걸고 방을 불였으나, 공주감사 또한 체포령을 내렸다 한다.

관군과 민보군으로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후 동지들과 함께 교리와 규칙 등을 설유하고 동학교단을 재조직하는데 꾸준히 노력했다.

그는 1895년부터 비밀리에 조직을 재건하고, 1897년에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01년에 가면 예포 관내 각처에서 조직에 가입한 호수만 해도 5,000여, 인원은 17,000여 명으로 확대되었고, 따라

“본포에서 징을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응하여 일제히 우리 포(包) 관내는 일시에 전광과 같이 모이며, 한편으로 각처에 간한 두목을 일일이 방출하기로 약속하니”

서 각 포주, 포장과 통운, 통신을 새롭게 정하게 되었다 한다. 문장로는 1904년 이후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에서 생활하다가 1919년 사망하였다.

덕성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조재곤



오동단, 동학농민혁명의 흔을 찾아서(4)



지난 이야기 – 손화중 장군은 백산을 찾아가며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대한 회상에 빠진다. 그러던 중 최경선 장군은 조덕배의 수하들이 백산에 오르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들은 급히 산을 올라 일행과 합류한 뒤 조덕배의 수하들을 퇴치할 계획을 세우고 오동단과 5대 장군이 힘을 합쳐 그들을 도망가게 만든다. 승리의 기쁨에 차 하늘을 올려다보면 태일은 나무의 흄에 들어있던 양철통에서 사발통문의 두 번째 조각을 찾아낸다. 5대 장군들은 사발통문 조각들을 모두 모아 동학농민군들의 역울함을 풀어줄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오동단도 함께 손을 모아 맹세를 보탠다.

우여곡절 끝에 사발통문의 두 번째 조각을 찾아낸 오동단과 5대 장군들은 사발통문의 세 번째 조각을 찾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투가 펼쳐졌던 우금치 전적지로 향한다. 오동단은 사발통문의 두 번째 조각까지 찾아냈으니 남은 조각들도 모두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웬지 모르게 5대 장군의 안색이 좋지 않다. 장군들의 어두운 표정을 알아차린 태일은 그 이유를 물어 보지만, 모두들 무거운 분위기에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다. 그 때 다솜이가 다시 한 번 천진난만하게 자신보다 몇 배는 거대한 김개남장군에게 그 연유를 묻는다. “**개남 아저씨 왜 그렇게 다들 표정이 어두워요?**” 조용히 있던 김개남 장군은 다솜이의 해맑은 모습을 보고 천천히 입을 떼었다. “**이 곳은 우리들의 마지막 격전지였단다.**” 우금치는 공주에서 부여로 넘어가는 견준산 기슭의 높은 고개로 우금고개, 우금재 또는 비우금 고개라고 부르는 곳이며, 1894년 9월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과 관군 일본 연합군의 마지막 전투가 펼쳐진 곳이다. 전봉준 장군도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신념을 가슴에 품고 죽장을 들고 돌격했지만, 관군과 일본군이 사용하던 양총의 무차별 공격에 패배하고 말았지.**” 그 말과 함께 5대 장군들의 눈시울이 하나같이 붉어지며 원통한 표정을 지었다. 오동단도 그들을 보며 자신들의 눈시울도 함께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우금치전적지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각자 사발통문 조각의 단서가 될 만한 흔적들을 찾아 나섰다. 아이들은 각자 한 명의 장군과 함께 산기슭에서 오래된 나무 틈, 거대한 바위 사이, 무성한 초목들 사이를 둘러보며 사발통문 조각을 찾는다. 그러나 우금치전적지에서 사발통문 조각을 찾는 이들은 오동단 만이 아니었다. 조덕배의 수하들 역시 아이들을 미행해 우금치전적지에 도착하여 사발통문 조각을 찾고 있다. 아이들은 조덕배 일당이 이곳까지 쫓아왔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분주히 단서를 찾아 헤맨다. 그러던 중 다솜이가 산속에서 우연히 산토끼 한 마리를 발견한다. “**와, 토키다!**” 다솜이는 도망가는 산토끼를 따라가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깊숙한 산까지 들어가 버린다. 그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다솜이의 등 뒤를 덮쳤고, 다솜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조덕배 일당에게 붙잡히고 만다. 나머지 아이들은 사발통문 조각을 찾는데 정신이 팔려 다솜이가 사라진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그러던 중 태일은 언덕저편에서 작은 폭포 하나를 발견한다. 물줄기가 거세지 않고 눈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의 폭포는 마치 오래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슬픈 역사를 한탄하는 듯 하다. 폭포를 본 전봉준 장군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원래는 이곳에 이런 폭포가 없었는데, 아마 우금치 전투 당시 일본군의 포격으로 지형이 바뀌어 만들어진 것 같구나. 그리고 안에서 어두운 기운이 스며 나오는 것이 의심스러우니 한 번 들어가 조사해 보는 것이 좋겠구나.**” 태일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폭포로 향한다. 태일은 뼈에 스며드는 듯한 차가운 폭포수에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성큼성큼 폭포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그곳에서 폭포 맞은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은 태일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둡고 암울한 인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는 태일에게 낮고 어두운 목소리로 말을 전낸다. “**아, 넌 왜 이런 귀찮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에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물에 비친 태일의 분신은 갖

은 부정적 말들과 모습을 보여주며, 태일을 혐혹한다. 그것을 보고 잠시 혼란에 빠졌던 태일은 5 대 장군들이 들려주고 보여주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힘차게 주먹을 쥐어 자신의 앞에 비추어진 가짜를 향해 주먹을 날린다. 그 순간 폭포에 비친 태일의 모습은 사라지며 그 너머로 작은 동굴이 보인다. 태일은 가지고 왔던 손전등으로 앞으로 비추며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동굴의 입구는 태일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지만 내부로 갈 수록 그 크기가 점점 커져 가다 마지막에는 집 한 채는 들어갈 정도로 큰 공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끝에는 오래전에 죽은 듯 한 유골이 일본군 복장을 한 채 누워있다. 태일은 용기를 내어 유골에 다가가 유심히 살펴보다 그 손에 쥐어진 사발통문의 세 번째 조각을 발견한다. “장군님, 여기 이 유골의 손에 문서가 있어요!” 태일은 기쁜 표정으로 황급히 사발통문 조각을 유골의 손에서 빼내려 했으나, 그의 손이 땅을 순간 갑자기 유골 주변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솟더니 평 하는 소리와 함께 태일을 뒤로 밀어내 버린다. 깜짝 놀라 급하게 몸을 일으킨 태일은 자신의 앞에 갑자기 나타난 일본군의 혼령을 보고 크게 놀란다. 일본군의 혼령은 “내 잠을 방해하다니 용서 할 수 없다!”라며 태일에게 다가간다.



그 순간, 녹두장군은 재빨리 태일 앞을 가로막고 일본군의 혼령을 막아낸다. 적막한 동굴 속, 두 혼령의 대결은 차가운 쇠가 부딪히는 파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낸다. 몇 합을 겨루더니 일본군 혼령은 전봉준 장군에게 “너희들은 이곳에서 패배했고 지금도 패배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강하게 일본도를 휘두른다. 전봉준 장군은 그 일격을 받아내다 돌멩이를 밟고 중심을 잃어 뒤로 넘어지고 만다. 그리고 일본군의 혼령은 쓰러진 전봉준 장군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린다. 그 순간, 태일이 뛰어나와 그 앞을 가로 막았다. “안 돼~!” 차가운 일본도가 태일의 가슴을 훠뚫었다. 혼령의 공격이기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태일은 혼이 빠져 나가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만다.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한 전봉준 장군은 검을 집어 들어 일본군의 혼령에게 일격을 가한다. 일본군 혼령은 전봉준 장군의 검을 맞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백골은 부스러져 가루가 된다. 전봉준 장군은 쓰러진 태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아직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은 어린 것이……, 태일이 네가 보여준 그 용기가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인지도 모르겠구나.” 전봉준 장군이 자신의 손을 태일의 가슴에 대고 눈을 감자 둘의 사이에 환한 빛이 감돌며 전봉준 장군의 모습이 점차 희미해지고 태일의 얼굴에는 생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봉준 장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태일이 마침내 눈을 뜬다. 태일은 자신이 쓰러진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앞에 놓인 사발통문의 세 번째 조각을 주워들고 “장군님, 여기 조각을 찾았어요!”라고 외치지만 전봉준 장군은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불안감을 느낀 태일은 재빨리 동굴에서 빠져 나와 주변을 탐색하고 있던 아이들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아이들과 나머지 장군들에게 설명한다. 그러자 옆에 있던 김덕명 장군이 태일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장군님은 용기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의지를 맡기신 것 같구나…….” 김덕명 장군은 전봉준 장군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을 건넴으로써 태일을 살려내고 무의 존재로 돌아갔음을 말해 준다. 그 말을 들은 태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며 손에 쥐



고 있던 사발통문 조각을 땅에 내팽개친다. 그러면 중 호동이는 주위를 둘러보다 “그런데 다솜이는 왜 안보이지?”라고 말한다. 그 순간 다솜과 함께 있던 김개남 장군이 나타나며, 다솜이가 조덕배 일당들에게 납치되었음을 알린다. 상황을 전해들은 오동단은 다솜이를 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하지만 태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주저앉아 있다. 그 때 김개남 장군이 태일에게 다가와 온 숲이 울릴 듯 우렁찬 목소리로 말한다. “꼬마야, 장군님은 너에게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모두 맡기셨다. 그걸 똑똑한 네가 모를 리는 없을 거야, 지금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그제야 태일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리고 오동단 일행은 다솜을 찾기 위해 나선다. 그때 그들 앞에 다솜이를 붙잡고 있는 조덕배 일당이 나타난다. 조덕배 일당은 여자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순순히 사발통문의 조각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태일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다솜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발통문의 세 번째 조각을 조덕배 일당에게 넘긴다. 하지만 조덕배 일당은 다솜이를 풀어주기는커녕 조각을 받자마자 아이들을 공격하려 한다. 그 순간 지금까지 혼령으로만 존재하던 장군들이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다. 5대 장군들은 이승에서 단 한번 자신의 모습을 강림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번 강림한 이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4명의 장군들은 조덕배 일당들에 맞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빨리 이곳에서 도망치라고 말한다. 오동단은 그곳을 벗어나 재빨리 산을 내려갔지만, 산 중턱에서 나머지 조덕배 일당과 마주쳐 태일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도 조덕배 일당에게 붙잡히고 만다. 혼자 가까스로 위기에서 탈출한 태일은 조덕배 일당을 물리치고 돌아온 네 명의 장군과 만나 나머지 아이들 역시 조덕배 일당에게 붙잡혀간 것을 이야기한다. 김덕명 장군은 태일에게 “태일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이 위기를 너 혼자의 힘으로 헤쳐 나가야한다. 하지만 넌 결코 혼자 가 아니다. 네 옆에는 항상 우리들이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거라.”라고 말하며 힘을 실어준다. 태일은 홀로 아이들을 구하고 빼앗긴 사발통문 조각들을 되찾기 위해 적의 아지트인 조덕배의 집으로 향한다.

전개과정

인민주권과 자유의
프랑스 혁명의충남대사학과
명예교수 서정복

최근들어 1789년 혁명에서부터 1815년 나폴레옹의 집권까지 포함하여 26년간을 프랑스 혁명의 전개과정으로 다루는 경향이 많으나,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1789년부터 국민공회까지 혁명의 시작과 승인, 새 헌법의 인준, 인민주권과 자유의 보장, 공화정의 수립과 공포정치, 공포정치의 종료 등 혁명에 혁명을 거듭한 과정과 그 내용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혁명(revolution)의 시작



프랑스 혁명은 신분제 의회(tat's g n raux) 소집과 파리 고등법원 기능회복에 희망을 준 재무총감 네케르를 파문하자 신문기자 출신 데몰랭이 팔래 루아얄 광장의 카페 드 푸아 앞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무기를 들고 일어나라”고 외쳐댄 이틀 후인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났다.

데몰랭의 연설에 홍분한 민중들이 네케르의 화상을 들고 상이군 인회관(Invalides)에서 탈취한 무기를 들고 수비대와 충돌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무자비한 사격으로 100명 정도가 쓰러지자 민중들은 폭도로 돌변해 6명의 수비병을 무참히 죽이고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했다.

정치범의 감옥이며 왕권의 상징이자 원한이 서린 바스티유에는 다섯 명의 잡범과 두 명의 정신이 상자를 포함해 모두 일곱 명의 죄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스티유의 ‘함락소식’에 고무된 민중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수비대장 로네를 길거리로 끌어내 죽이고, 피가 흐르는 그의 머리를 창끝에 내걸고, 전열을 가다듬어 왕궁으로 향했다. 전날의 사냥으로 지친 루이 16세는 아침잠에서 채 깨기도 전에 리앙쿠르 공으로부터 바스티유의



함락 소식과 민중의 왕궁침입 사건을 전해 들었다.

깜짝 놀란 루이 16세는 “이것은 반란이다”라고 했으나 리앙쿠르 공은 “아닙니다, 폐하. 이것은 혁명입니다”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사실이 되어 7월 14일이 혁명 발발일이 되었다.

이때 민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 봉기했다는 보고를 받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먹을 것이 없으면 봉봉(과자)을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국민의회의 탄생과 혁명의 승인

사실 혁명의 불꽃은 이미 1789년 1월에 브르타뉴에서 대학생 중심의 부르주아와 귀족 간의 충돌, 3월에 브장송의 민중봉기, 4월 27일에 레베이용 공장의 폭동 등 7월 14일 이전에 ‘돌이킬 수 없이’ 오르고 있었다.

혁명은 네케르의 요청에 따라 45억 리브르의 국채를 해결하기 위해 175년 만에 개최된 신분제 의회에서 표결방법으로 ‘머릿수, part te’로 할 것인지 ‘신분별, par ordre’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분별’ 회의를 강요한 루이 16세에 대한 항거로 시작되었다.

테니스코트 서약

제3신분 의원들과 일부 성직자 출신 의원들이 주동이 되어 6월 20일 테니스코트 서약(jeu de paume)과 더불어 ‘국민의회, Assemble nationale’를 선포하고 이후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스탈부인도 “이 법령은 혁명 자체였다”라고 한바와 같이, 그것은 의회의 혁명이었다.

그것은 왕명에 대한 항거이자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 ‘국민의회’의 탄생에서부터였다. 7월 29일에는 파리대학 총장과 대학 구성원 일행이 ‘국민의회’에 참석했고, 8월 4일에는 앙시앵 레짐의 특권을 폐지하는 감사의식인 ‘테데움Te Deum’에 경의를 표했다.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회’밖

라고 선포하고 왕국의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는 과업을 시작했다. 무니에는 30명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의원의 대표로서 새로운 헌법 원칙을 설명하면서 헌법의 앞머리에 ‘권리선언’을 삽입할 것을 주장했다.



테니스코트의서약



마리안

에 없었다. 8월 4일 밤, 몇몇 자유주의 귀족의원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수렵권 및 장원법정에서의 권리 그리고 영주의 특권 등이 포함된 장원권을 포기하는 결의를 했다. 8월 26일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통해 자유·평등·우애(조국애)를 슬로건으로 국민주권이라는 새 원칙을 세웠다. 의회가 군주에게서 인민에게로 주권을 넘긴 것이다. 마라의 말처럼 루이 16세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에 바로 국민의회가 프랑스 혁명을 승인한 것이었다.



제헌국민의회의 헌법승인과 혁명 추진

국민의회는 무니에의 제의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고 확고한 기반을 다지기 전까지는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서했다. 의회의 결정을 파기하고 신분별로 헌의하라는 루이 16세의 명령에 미라보는 “우리는 총칼의 힘이 아니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외치며 거부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왕은 6월 27일 ‘머릿수 표결’을 허락했고, 7월 3일 비엔나의 대주교 르프랑 드 풍피냥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의회는 더욱 힘을 얻었다.

7월 9일 ‘국민의회’는 ‘제헌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8월 6일에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골자는 “인간은 자유롭고 모든 권리에서 동등하다(1조)”, “모든 통치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속해 있다(3조)”, 그리고 “소유권과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2조)”는 것이다.

그것은 특권계급의 타도와 귀족 제의 폐지를 정당화한 것이었을 뿐 결코 민중을 국가와 사회의 동반자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민중들은 권리를 쟁취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9월 ‘제헌 국민의회’가 새로운 정부에 대한

1] Révolution française Bicentenaire(1789-1804)[Bruxelles: Lefebvre & Gillet Éditeurs, 1989], p.18.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실제적인 계획에 착수했을 때 혁명 추진자들은 분열하기 시작했다. 단원제든 양원제든 양편 모두 국왕의 강력한 거부권 행사를 두려워했다. 10월 4일 민중들은 뻥 가격의 상승, 의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왕에 대한 불만으로 봉기했다. 게다가 베르사유에 도착한 플랑드르 연대를 축하하는 연회에서 근위대 병사들이 혁명의 상징인 삼색휘장을 짓밟고 군중들을 모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리 민중들은 더욱 동요했다. 7,000명이나 되는 파리의 여성들은 마이아르의 지휘에 따라 구호를 외치면서 베르사유로 행진했고 왕으로부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받아들이고 짚주린 민중들의 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받았다. 국왕은 왕비와 황태자를 거느리고 라파예트와 함께

발코니에 나타나 “파리로!”라는 군중들의 외침을 받아들였다.

민중들은 루이 16세를 텔르리궁으로 이송하여 감시했다. 이 시기에 자진 사퇴한 의원들이 50명에서 점점 늘어나 헌법토론 시기에는 150~250명, 그 해 말에는 무려 250~550명에 달했다. 이제 혁명은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과격한 쪽으로 치닫게 되었다. 1790년 여름부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루이 16세는 텔르리궁에서 입헌군주의 역할을 했으며 반 혁명파, 입헌군주파, 애국파 등의 의원들이 의회연단을 중심으로 각각 당

‘국민의회’는 ‘제헌국민의회’,
Assembl e nationale constituante’라고 선포하고
왕국의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는 과업을 시작했다.

과별로 자리 잡는 관행이 생겨났다. 미라보, 시에예스, 로베스피에르, 바이이, 라메트 등의 능변가들이 의회를 주도했으나 공통점은 없었다. 전국 83개의 지자체는 각각 국민방위군을 갖추었으며, 신속하고도 자발적으로 연합했다. 1790년 7월 14일, 파리에서는 바스티유 감옥 점령 기념과 대국민 화합을 위한 연맹축제가 열렸고 “국가, 법률, 국왕”에 대한 충성을 서약했다. 파리대학 학생들도 시민들과 함께 의식에 필요한 장식을 준비하기 위해 참여했다. 이후 1880년부터 7월 14일은 혁명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경일이 되었다. 입헌군주정의 틀이 마련되었다. 의원들은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일반의지(volont gnrale)’에 의한 인민주권개념에 관심이 있었고, 현(도) 행정의회(Assemble administrative)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했다. 지자체에서는 능동시민(citoyen actif)들이 2년마다 명사회와 자치체로 구성되는 코뮌 참사회의 의원들을 선출했다. 도에서는 2년마다 선거인회를 통해 선출되는 36인의 참사회 의원으로 의결기관을 구성했다. 그리고 집행부는 참사회 안에서 선출한 8인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혁명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혁명은 종교와 왕,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성직자민사법은 선서파(asserments)와 비선서파(rfractaires)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교와 국가의 분리에 역행하기도 했다.

충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서정복



2) Andr Tuilier, “L'Universit de Paris, La Sorbonne et La Rvolution”, Clbration du Bicentenaire de la Rvolution Francaise en Sorbonne, juin-juillet, 1989, pp.72-73.

보은, 옥천, 영동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충청도는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이 본거지로 삼아 동학교단의 본부를 세운 곳으로 특히 충청북도에서 보은집회가 열렸던 것으로 유명하다. 충청북도의 농민군들은 1894년 9월 18일 일제히 기포하였으나 봉기와 동시에 관군과 민보군, 일본군에게 일제히 공격받게 된다. 그러나 공주 우금티의 패배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대항하다 수많은 농민군들이 한 떨기 꽃처럼 스러져 간 곳이 바로 충청북도이다. 특히 영동과 보은, 옥천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곳으로 전적지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다수 분포해 있다. 또한 보은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기념 시설 또한 잘 갖추어져 있어 돌아볼 곳이 많은 풍성한 답사가 되었다.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탑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11월 가운데에 들어서 얼다만 눈이 추적추적 내렸다.

하루하루 날이 지나 어느새 겨울을 알리는 전령이 내려온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때가 되면 계절이 지나고 한 해가 마무리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만, 막상 연말이 다가오면 싱숭생숭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듯 올해의 미련보다는 내년의 희망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충청북도로 향한다.

가장 먼저 들린 지역은 보은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번 119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던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찾았다. 공원 둘레를 따라 빙 둘러있는 성벽을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인내천정이라는 현판을 달고 있는 정자를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왼편에 보이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저만큼 위쪽에 기념탑이 올려다 보이는 광장으로 들어서게 되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오르막길로 접어들면 직선으로 기념탑에 오를 수 있는 돌계단을 마주하게 된다. 이번에는 공원을 전체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광장을 통해 하늘길이라 이름 붙여진 나무계단으로 오르는 길을 선택했다. 답사 전 날 눈이 내렸는지 소담스레 쌓인 흰 눈에 발자국을 남기는 호사로 누릴 수 있었다. 이윽고 기념공원의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기념탑에 다다랐다. 동학농민혁명기념탑이라 새겨진 이 탑은 쓰러진 전우를 안고 있는 농민군 동상이 인상적이다.

왼손으로는 동료를 감싸고 있지만 오른손에 받쳐 들고 있는 죽창의 끝을 노려보는 눈빛은 마치 자신들이 쓰러지더라도 높이 솟은 죽창 같은 기상은 꺾을 수 없을 것이라 외치는 듯한 모습이다. 그에 걸맞게 그들의 뒤쪽으로는 하얀 대리석으로 쌓여진 탑이 곧게 서있으며, 기념탑 뒤쪽으로는 아름다운 부조와 동학농민군들의 글귀가 새겨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보은군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하였으며, 손꼽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로 자리하고 있다.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김소천가

김소천가

다음으로 북실전투 직전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머물렀던

김소천가로 향했다. 이 곳은 소춘찰방을 지낸 김세희의 집으로 당시에는 북실 일대에서 가장 크고 잘 지어진 집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우금치에서의 패배 이후 북접농민군이 북실로 모여들자 일본군과 민보군의 연합부대는 북실로 이동하여 12월 17일 야습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마을 입구를 지키던 농민군을 붙잡아 북접농민군 지도자들이 김소천가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캐낸다. 일본군과 민보군 연합부대는 정보대로 김소천가를 기습하였고, 그곳에 머물고 있던 농민군 지도자들은 재빨리 도주하여 목숨을 건졌다. 이는 다음날인 18일, 수많은 농민군들이 희생되었던 북실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전초전이었던 것이다.

현재의 김소천가는 과거의 대저택과는 거리가 멀지만 대문 왼편에 쌓여있는 나무장작들이 어색하지 않은 옛집이었다. 외부에서 몇 번 촬영하고 난 뒤 내부로 들어가자 마치 탈곡기를 돌리는 듯 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개를 돌려보자 수 많은 원앙들이 우리 안에서 날개를 펴덕이고 있었다. 외부 벽에 걸려있던 원앙 이집이라는 고개를 가웃하게 만들었던 현수막이 바로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을 보호하는 곳이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다. 건물은 드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운데 위치한 건물의 문틀은 당시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접이식 창호문을 사용하던 대저택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단서로 자리 잡고 있다.

북실전투지

보은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전투였으며 동시에 가장 많은 농민군들이 희생된 전투는 바로 북실전투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소천가를 습격하였으나 소득을 얻지 못한 일본군과 민보군 연합부대는 곧바로 북실 일대에 진을 치고 있던 농민군들을 공격하였다.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하였고 무기의 화력차이도 커기에 농민군들은 거의 학살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패배하였다. 일본군은 전투 중 사살된 농민군의 숫자를 300명이라 보고했지만 이는 축소된 숫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적어도 400명 이상이 희생당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북실전투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산길로 접어들어 도보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쌍인 눈이 녹아 가는데다 그 아래는 낙엽으로 덮여있어 바닥이 매우 미끄러



북실전투지

위 꽈나 애를 먹게 되었다. 약간의 고생 끝에 전투지에 도달하여 촬영할 수 있었지만 동학농민군의 흔적을 찾는 이들을 위한 자그만 오솔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장내리 집회터

보은의 동학농민혁명 역사

를 논한다면 역시 보은집회를 제외하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해인 1893년 동학교단은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복합상소 운동을 한 뒤 보은 장내리에서 대

규모 집회를 열었다. 3월 10일부터 4월 5일까지 개최된 보은집회에는 동학교도 약 2만 3천여 명이 집결하였으며 이들은 척왜양운동을 전개하다 조정에서 선무사 어윤중을 내려 보내는 등 효유하자 자신들의 주장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믿고 해산하였다. 또한 장내리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당시도 많은 동학농민군이 집결한 곳이다.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이 보은 장내리의 대도소로 집결하라는 기포령을 내리자 수만 명의 농민군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수백 개의 초막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의 보은 취회지에는 보은장안동학취회지라 쓰여 있는 입간판이 덩그러니 세워진 논의 모습이었다. 논은 이미 추수철이 지나 키 작은 벗짚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하다기보다는 마치 그 벗짚 하나하나가 농민군의 모습같이 보여 황금들판 만큼이나 멋진



장내리 집회터

곳이 아닌가 싶었다. 논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길은 보은집회 당시 농민군들이 훈련을 위해 축성한 돌성의 흔적이라 하며 훼손되어있기는 하나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동학의 지도부와 농민들이 이곳에 모여 집회를 가지며 훈련이라는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후년에 있을 봉기에 대해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모여든 농민군들이 어떤 마음으로 집회에 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굳은 결의가 있었음을 전해 받을 수 있었다.

동학혁명군재기포기념비

보은의 유적지를 둘러본 뒤 다음 목적지인 옥천으로 향했다.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찾은 곳은 1997년 11월 7일에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의 순도 100주년을 기념하여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건립한 동학혁명군재기포기념비다.

최시형은 1861년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1863년 최제우를 이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었다. 이듬해 정부의 탄압으로 최제우가 처형되자 감시를 피해 동학의 포교에 힘썼으며 『동경대전』, 『용담유사』 등을 발간하여 경전을 완성하였다. 1대 교주 최제우가 동학의 사상을 만들었다면, 2대 교주 최시형은 이를 정리하고 다듬어 세상에 알리는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최시형은 2차 봉기에 대해 처음부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천도교회사초고』에는 최시형이 7월경 까지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전언한 바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동학교도들이 계속해서 희생당하는데다 일본은 본격적으로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국 삼례에서 2차 봉기가 일어났고, 교단 지도부에서도 기포 요구가 이어지자 전봉준 장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포령을 내리게 된다. 백범일지에 따르면 당시 최시형은 '호랑이가 물러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서서 싸워야지'라는 말로 기포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전국의 동학농민군이 일어나게 되었다. 현재 동학혁명군재기포기념비가 세워진 곳은 최시형이 기포령을 내린 한곡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청산 문바위

최시형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당시 기포령을 내렸던 한곡리에는 옥천지역 동학농민군 지도자인 김영규, 김재섭, 김정섭, 박맹호, 박창근, 박희근, 신필우 등이 목숨을 건 투쟁을 결의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둔 문바위가 있다. 이곳은 2차 봉기에 참여한 농민군 수천여명이 모여들어 '새 서울'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문바위라는 곳이 유명한 유적지도 아닌데다 초행자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길이 복잡하다 하여 답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며 길을 나섰다. 그러나 대로변에서부터 '동학농민혁명유적지 문바위'라고 적힌 표지판을 볼 수 있었고, 이후에도 문바위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입간판들이 드문드문 서있어 덕분에 손쉽게 문바위에 도달 할 수 있었다. 옥천군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되었다. 문바위 앞쪽에 솟아있는 소나무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거기에 바위 위에 흘러려진 소나무 낙엽이 운치를 더해주었다. 문바위에 새겨진 이

름은 앞쪽의 큰 바위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틈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끼가 많이 끼기는 했지만 김영규라고 새겨진 이름이 분명하게 보였다. 이름을 발견하고 측면의 모습을 보기 위해 돌아 나오는 길에 무심코 바위에 손을 올렸을 때 유난히 깊은 흠이 패여 있는 것을 느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에 세 명의 이름이 더 새겨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이곳에 이름을 새기며 나라를 위해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다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백년이 넘는 세월 속에 비와 바람에 침식당한 바위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바위 뒤편으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여 잠시 구경할 요량으로 언덕을 넘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글귀가 적힌 구조물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아마도 문바위를 옥천지역의 동학농민혁명 대표유적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일 것이다. 이후 방문 할때는 멋진 기념공간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발걸음을 들렸다.

월전 전투지

보은과 옥천을 지나 마지막 답사지인 영동으로 접어들었다. 영동은 특히 북접농민군들이 민보군과 격전을 치른 곳으로 전적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월전 전투가 있었던 월전마을로 찾아가면서 길은 점점 산으로 향했다. 아무렇게나 흘어놓은 뱃줄처럼 구불구불 이어진 오르막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접어드는 도마령 고갯길로 접어든 것이다.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모를 오르막을 올라 해발



문바위



월전 전투지

800미터인 상용정에 다다르자 멀고 가깝게 펼쳐진 고산준봉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관경이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른 상쾌함도 잠시, 올라온 길 만큼이나 굽이쳐 펼쳐진 내리막이 한참이나 이어졌다.

우금티 전투이후 패배하여 태인까지 밀려간 북접의 농민군들이 근거지인 충청도로 향하기 위해 임실, 장수를 거쳐 무주로 향했다. 이들은 무주에서 전열을 정비한 후 무주 설천과 월전에서 무주의 민보군을 격파하였다.

쉽사리 그 모습을 보여
주지 않던 월전 마을은
30여 호나 될법한 고즈
넉한 조그만 마을이었

다.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 쉼터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둘러보니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이곳에서 무주의 민보군들을 맞이하여 어떻게 전투를 벌였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산을 넘다 지친 민보군을 맞이하여 효율적인 수비를 펼쳤을까? 아니면 민보군이 진입할 골짜기에 매복하여 기습하였을까? 어떤 활약이었던 우금치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 민보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항성을 드높였을 농민군들을 생각하여 가슴 뜨거워짐을 느꼈다.

용산 전투지

농민군의 행보를 따라 굽잇길을 뒤로하고 용산 전투지로 행했다. 현재의 용산전투지에는 용산중학교가 들어서 있었다. 체육수업 중이었는지 체육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말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학교 운동장을 거닐었다. 월전 전투지에서 승리를 거둔 농민군은 영동 읍내를 점거한 뒤 용산장터에 주둔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병력을 영동지역 농민군들을 소탕하기 위해 투입하였다. 이들이 전투에 참여하기 전날, 농민군과 민보군의 첫 전투가 벌어졌다. 민보군은 농민군을 계곡으로 유인하여 기습하는 작전을 세웠으나 오히려 농민군의 유인책에 빠져 후퇴하



용산 전투지

“나라를 위해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다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백년이 넘는
세월 속에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였다. 다음날 아침 민보군과 관군이 연합하여 다시 한번 농민군을 공격하였으며, 농민군은 용산의 정상을 진을 치고 적군을 맞이하였다. 농민군은 무기의 열세에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적군을 막아내었으며 청주영관을 살해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승리하였다. 다음날 관군과 민보군은 청산 대동으로 물러났고 농민군은 이들을 추격하여 보은과 원암 지역까지 쫓아내었다. 이러한 대단한 성과를 올린 때가 1894년 12월 중순, 즉 우금치에서의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태인까지 후퇴하는 수모를 당한지 얼마나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월전에서, 그리고 용산에서 다시 한 번 전투를 치르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이들이 개인의 영달을 목표로 일어났다면 결코 이런 정신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로지 보국안민, 제폭구민.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일어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정신을 새삼 깨달았다. 충청북도 지방의 농민군들을 위하여 고개 숙여 뚝념을 보낸다.

기념재단

사발통문



0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랑의 고구마 전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지난 10월 24일(목)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부지 내 토지를 활용하여 재배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수확 한 고구마 40박스와 시중에서 구입한 쌀 12포대를 정읍내 장애인시설인 나눔의 집, 행복의 집, 화평의 집, 성모의 집 등에 전달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이번 사랑의 고구마 전달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한층 더 다가갈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은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어났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 현대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선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발통문은...

여러사람에게 알리는 글을
통문(通文)이라 하는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누가 주모자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둥글게
빙 둘러 가며 적은 사발통문을 돌렸다.





02



03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학술대회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하는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학술대회가 10월 17일(목)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1893년, '동학농민혁명 전야(前夜(전야))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기 전 1983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계획 되었는지에 대한 강연과 토론으로 꾸며졌다. 이화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배한섭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원재연 수원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의 발표가. 제2부에서는 이경원 가톨릭대학교 강사와 성주현 청암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발표가 끝난 후에는 신영우, 송양섭, 김신재 교수와 김선경 서울대학교 규장각 책임연구원,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 소장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전라북도의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무감사

지난 11월 11일(월)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섭)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대폭 삭감된 내년 120주년 기념사업비의 증액을 위한 노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조율과 조정, 어린이전시관 개관행사의 시기 조정 등을 지적하며 조치를 요구하였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이를 차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04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13년 하반기 특별전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13년 하반기 기록물 특별전시 '1894년 이후의 동학농민혁명'이 11월 4일(월)부터 2014년 3월 28일(금)까지 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1900년대의 대중들이 동학농민혁명 인식에 대한 주제를 담고 총 40여점의 기록물을 전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1926년 발간된 산운 장도빈의 역사서 '동학란과 전봉준'은 전봉준이 주창한 "옛것을 뜯어고치고 새것을 정립하며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궁색한 이를 돋는다"는 기록을 담고 있어 동학농민혁명사에 최초로 민족사적 의의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윤석모 사무처장은 "향후 우리역사에 동학농민혁명사를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으며 "전시되지 않았던 소장기록물도 차차 전시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05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문위원회 개최

지난 11월 26일(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문위원회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하우봉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린이전시실 개관 및 활성화 방안,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특별전시 계획, 유물기증 제안 논의 및 기증 유물 활용 방안 계획과 기타 안건으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치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하우봉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조언 등을 최대한 참고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06



07

동학농민혁명 전국화 강화회의 개최

지난 11월 27일(수) 대전시 유성구 아드리아 호텔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대표, 자치단체 관계자, 권역별 동학농민혁명포럼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전국화 강화회의가 열렸다. 이번 동학농민혁명 전국화 강화회의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을 전국화하고 정신선양사업을 활성화 하기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12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을 소개하는 취지였다. 이날 행사는 정종윤 월간이벤트 대표의 초청강의를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을 알리고 각 지역 기념사업단체의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지역 간 사업연계방안을 토론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2기 제2차 이사회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임원진의 두 번째 이사회가 지난 12월 6일(금)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14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여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4년도 선양 사업 예산 의결, 재단 보수규정 개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 한 후, 2013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실적,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추진계획,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현황, 120주년 기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문화재 등록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김대곤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참석한 이사들에게 활발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정읍시('13.10.03)

지난 10월 3일(목) 황토현 전적지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광장에서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가 후원한 이번 기념식은 기념탑 건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과 계승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동학혁명기념탑은 1963년 10월 3일 '동학혁명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가 건립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최초의 기념탑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이 난, 민란으로 평화되던 때 '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50년 전 기념탑 건립을 주도했던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치백 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어 그 의미를 더하였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언급 조차 쉽지 않던 때에 동학농민군의 후예인 우리 정읍지역 민이 중심이 되어 공개적으로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념탑을 건립해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세간의 평가와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다"며 자랑스러움을 표했다.



홍천 119주년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 추모식 거행 홍천문화원('13.10.23)

홍천문화원(원장 허기영)에서는 지난 10월 23일(수)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에 위치한 동학혁명군위령탑에서 제 119주년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 추모식을 거행하였다. 풍암리 자작고개는 차기석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지역 민과 합세해 민보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신식무기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8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강원도 최대 최후의 전적지다. 서석면에서는 희생자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1977년 자작고개에 동학혁명군위령탑을 건립했으며, 매년 10월 23일을 기해 동학혁명군 희생자 추념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 추념식은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정진한 추모사업회장의 경과보고, 허기영 홍천문화원장, 허필홍 홍천군수의 추념사, 홍천군의회 용택식 의장, 천도교 김혁태 상주선도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의 인사말씀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의 현화 및 분향과 주현미의 노래 자작고개의 합창으로 식을 마무리하였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학술대회 정읍시('13.12.05)

정읍시에서는 지난 12월 5일(목) 전북과학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한국사 교과서와 문학작품 속의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황민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김생기 정읍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유영렬 前국사편찬위원장의 기조강연이 이어졌으며, 서인원 동국대학교 교수, 조성운 경기대학교 교수, 채길순 명지전문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박대길 동학선양팀장, 신항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성주현 중앙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학술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난 1894년 1월에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연구되어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평등한 민주사회와 반침략 평화사상을 지향한 동학농민군의 참뜻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2013 우금치 추모예술제 열려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13.10.27)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회장 지수걸)에서는 지난 10월 27일(일) 2013 우금티추모예술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추모예술제는 '우금티 추모예술제, 청소년의 눈으로 본다'라는 주제로 충남지역의 8개 학교 학생 200여 명과 대학생, 공주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평등과 인간중심의 가치를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의 역사체험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예술제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역사노래, 역사촌극, 역사 사진전시 등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의 작품전시와 발표회가 진행되었으며, 2013 우금티문예상 수상자들을 시상하였다. 오후 3시부터는 우금티전적지에서 1894년 희생당한 동학농민군의 혼을 달래는 추모공연과 위령제가 열렸으며, 우금티문예상 캐릭터부문의 수상작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지수걸 회장은 "역사 도시로서 공주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역사의식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상주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재)공갈못문화재단('13.10.23)

지난 10월 23일(수)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주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활용방안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재)공갈못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주요섭 (사)모심과살림연구소장의 '동학의 생명사상과 문명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김영태 (재)공갈못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연구'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김남일 경북도청 일자리 투자본부장,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정갑연 상주시의회 총무위원장,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원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 이후에는 북천공원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비 앞에서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강효일)가 주관한 상주동학농민군 위령제가 진행되었다.



삼례봉기 119주년 기념대회 열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완주지부('13.10.25)

지난 10월 25일(금) 삼례봉기 역사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119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완주지부(회장 김정호)에서 주관한 이번 기념 대회는 박웅배 삼례군 의장과 군의원, 유창희 前도의원, 국영석 고산농협조합장, 김대곤 재단이사장, 유신봉 삼례읍장을 비롯한 약 200명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기념식은 조법종 우석대학교 교수와 권오영 여성 및 문화부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희생된 동학농민군을 기리는 제례가 진행되었고,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2차 봉기에 참여한 농민군들의 행군로를 되짚어가는 체험행사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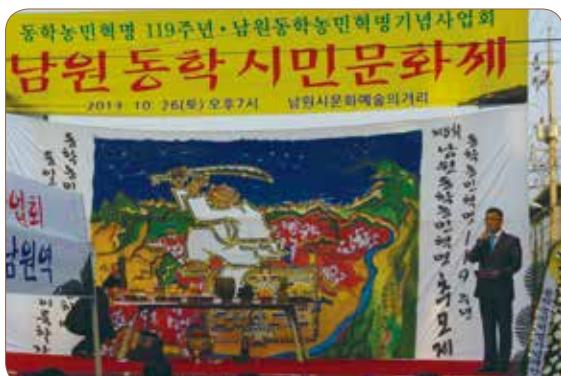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 김정호 회장은 '학술대회와 논문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우리 완주의 지위를 확인하고 이를 초석으로 한걸음 한걸음 재조명해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



2013 남원동학농민혁명 시민문화제 개최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13.10.26)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황의동)는 지난 10월 26일(토) 2013 남원동학농민혁명 시민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시민문화제는 제8회 방아치전투 전라좌도 농민군제향으로 엄숙하게 시작되었다.

방아치전투 전라좌도 농민군제향은 매년 방아치 전투지에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 남원부 관아터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유족과 지역단체장, 남원시민들이 참여해 정숙한 분위기에서 남원의 동학농민혁명 영령들을 추모하였다. 농민군 제향 이후에는 한병옥 前남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의 '통한의 남원성 북문 구 남원역'을 주제로 한 역사강연회가 열렸으며, 이후 남원동 학시민문화제가 이어져 길놀이, 진흙무,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었다.



제23회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군 추모제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13.10.29)

지난 10월 29일(화)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최기중)에서는 백화산 동학농민혁명군추모탑에서 제23회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군 추모제를 거행하였다.

내 외빈과 동학농민혁명유족, 태안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추모제는 문영식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의 청수봉전을 시작으로 김한국 태안문화원장의 위령문 낭독, 태안여고 학창단의 추모가, 최기중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의 기념사, 박남수 천도교 교령,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진태구 태안군수, 김진권 태안군의회의장의 추모사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추모제 이후에는 '시천주, 한울님 모심'을 주제로 김재형 죽곡농민열린도서관장의 열린 인문강좌가 이어졌다.

문영식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은 '내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내포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확대간부회의 개최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13.11.07)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이왕재)에서 2013년 11월 7일(목)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왕재 회장의 주재로 전국 부회장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당면과제를 논의하였으며, 2013년 결산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 중인 2014년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검토하였다.

참석자들은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의 명예선양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야 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고창군 제9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열려

고창군('13.11.08)

고창군과 역사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제9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가 지난 11월 8일(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이전단계, 민중의 동향에 대해 이이화 前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송찬섭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김용태 성균관대 교수, 강효숙 원광대 교수, 김봉곤 순천대 교수의 학술발표와 김양식 충북학 연구소장, 홍동현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노대환 동국대 교수, 조재곤 동국대 교수, 정진영 안동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충북대 신영우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전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내년 120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미래화와 세계화 중점을 두고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확인하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유한 정신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19회 고성산 동학혁명군 위령제 열려 고성산동학혁명군기념사업회('13.11.11)

제119회 고성산 동학혁명군 위령제가 지난 11월 11일(월) 고성산성 동학혁명위령탑에서 거행됐다. 고성산동학혁명군기념사업회(회장 고정표)가 주관한 이날 위령제는 최정경 하동부군수를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한광도 천도교 연원회 회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고윤지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천도교인, 기념사업회 관계자, 하동군민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위령제는 청수봉전을 시작으로 심고, 주문병송, 경전봉독, 동학혁명군 12개조 폐정개혁안 낭독, 박남수 교령의 추념사, 추모사, 분향, 추모가 합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고성산 동학혁명군 위령제는 일본군의 내정간섭에 항거해 보국안민과 척양척왜의 가치를 걸고 고성산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산화한 동학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에 열리고 있다.



예산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13.11.22)

지난 11월 22일(금) ‘동학의 글로벌리제이션: 예산 동학농민혁명의 종합 연구와 과제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한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박성목)와 동학학회의 공동주최로 공주산업과학대학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동학학회 최민자 회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으며, 이 이화 前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신영우 충북대교수, 임형진 경희대교수, 박성목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조극훈 경기대교수, 김정호 인하대교수, 안외순 한서대교수의 학술발표와 최홍규 경기대교수, 성주현 청암대교수, 한건택 충남문화재전문위원, 김영대 한국교통대교수, 황묘희 평택대교수, 이정희 공주대교수, 임상욱 숙명여대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동학학회 최민자 회장은 “예산 동학의 위상을 내포동학, 충청동학, 전국 동학혁명의 위상 속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동학의 정체성과 의의를 밝히고 역사성을 제고함으로써 동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을 수 있을것”이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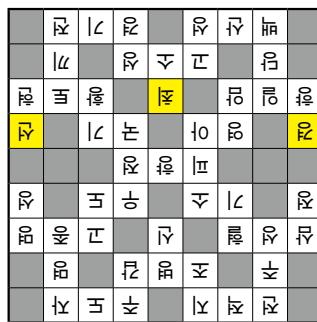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무안 동학농민군을 위한 합동위령제 개최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13.12.09)

지난 12월 9일(월)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면)의 주최로 무안 동학농민군을 위한 합동위령제가 개최되었다. 내외빈과 유족, 무안군민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합동위령제는 1부에서 천도교 위령식과 박남수 천도교 교령의 임령식 이후 위령공연이 상연되었다. 2부에서는 동학농민군을 위한 분향과 고천문낭독, 그리고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윤성호 무안군 부군수, 이왕재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의 추모사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광용 부이사장의 선창으로 참석자 모두가 만세삼창을 외치며 억울한 죽음을 당한 동학농민군의 넋을 위로하였다.



제 5회 가로세로
정답
국민총선클리닉

원평 구미란전투 희생자 추모문화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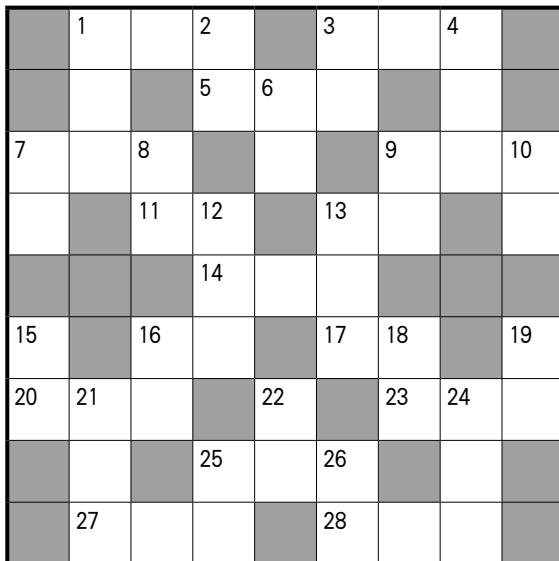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13.12.21)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지난 12월 21일(토) 전봉준 장군 부대의 최후전투지였던 원평 구미란 전적지 마을회관에서 원평 구미란전투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날 행사는 모악 예술단의 식전공연에 이어 위령제가 진행되었으며, 관련단체장, 김제시의원들과 김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원평 구미란전투 희생자 추모문화제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되던 해부터 김제지역 향토사학자 고(故) 최순식 선생이 주관하여 개최해오다, 2008년부터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이를 위임받아 이어오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김제지역 기념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고 내년 120주년을 맞이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제 5 회 가로세로 녹두꽃 낱말퍼즐

가로세로 낱말퍼즐을 맞춰주세요.
정답은 50P 하단에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화관광해설사
김수웅(金秀雄)

문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5대 장군 중 한 명으로 1893년 11월 사발통문(沙鉢通文) 거사계획에 참여하였던 농민군 지도자이며 1895년 3월 30일 전봉준, 손화중과 함께 37세의 나이로 처형되어 최후를 맞이하였다. 다른 농민군지도자들과는 달리 그의 시신은 수습되어 전북 정읍시 칠보면 축현리에 안장되었다.

가로열쇠

-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전투가 있었던 장소. 우금치
- 어떤 일이나 음모를 꾸미는 사람. 민란의
- 고부군수의 횡포와 착취에 항거한 고부농민봉기
- 제주시 동문밖에 있는 세 개의 구멍
- 오복은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함
- 정읍, 고창, 부안, 김제 등지에서 행하는 농악을
- 최치원이 세웠다는 정읍태인면에 있는 정자. 보물 289호
- 젖을 먹을 나이의 어린아이
- 일장기, 오성홍기, 성조기, 태극기, 인공기, 삼색기
- 여수시 금오산에 있는 해를 향한 암자
- 농민군이 관군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전적지
-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 있는 삼국시대에 쌓은 성. 사적 151호
- 사적 409호로 부안 동진강 하류에 위치한 47.4미터의 산성
- 이성계의 어진을 모셔놓은 곳으로 전주 한옥마을에 있다

세로열쇠

- 동학농민군은 1894년 5월 31일 이곳으로 무혈입성
- 원칙과 신명을 굽히지 아니하고 지켜나가는 꿋꿋한 의지
- 육십갑자의 갑으로 되돌아온다. 내년은 동학혁명 2의 해
- alarm clock 自鳴鐘
- 1894년은 갑오년 - 95년은 을미년 - 96년은 을년
- 동학혁명의 빌미를 제공한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
- 성년은
- 옛 도읍. 부여는 백제의
- 세상에 널리 퍼져 평평높은 이름. 올해 을을 날린 선수는?
- 불가리아의 수도
- 1884년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편행정관서
- 서울과 시골. 음식 맛이 좋기로
- 전남에는 도감사, 왕인박사유적지, 월출산이 있다
- 먹을것이 없어 배를 주름
- 옛날의 현인. 들이 담긴 옛글에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
- 혼자서 능히 백사장을 당한다
- 가장 작음. 경비를 줄이는 해외여행
- 별주부전 토생원전
- 옛날에 지어서 오래된 성. 전화로 사라진 을 복원
- 기독교의 경전. 신약 27권과 구약 39권으로

